

5월의 잔상



심우정
FITI시험연구원
원장
02-3299-8117

5월이 되니 온 세상이 초록빛이다.
운동·주변이 연초록빛 생명으로 반짝이니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같이 나이 좀 먹은 이들도 덩달아 젊은 기분으로 채워져 삶의 에너지가 커지는 느낌이다.

어릴 적 코 훌리게 시절 5월은 책보를 베고 시골 학교를 오가는 시골길 양쪽의 새파란 보리밭, 밀밭, 푸른산 등으로 물들여져 있었던 시절로 떠오른다. 방과 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들로 산으로 운동할 때마다 부모님께 야단맞던 기억이 생생하다.

조금 커서 중·고등학교 시절의 5월은 작은 인근 도시로 이사 와서 살다보니 아주 어릴 때 시골풍경은 떠오르지 않고 학교생활에 매달려서 그런지 5월의 신록은 크게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지 않고 학교생활 중 체육대회, 소풍의 배경 정도로 남아있다.

대학시절의 5월은 서울 인근의 길푸른 녹음 속에서 야외 피킹하던 시절의 파란 숲이 생각난다.

군대 시절의 5월로 가보면 훈련받던 시절 3, 4월의 진해는 왜 그리도 춥고 배고프던지 5월의 따뜻한 햇빛과 기온이 그렇게도 고마웠던 생각이 난다.

이제는 그 추위 때문에 마음과 몸이 오그라들지

않게 되어 어떤 모진 훈련과 기함도 문제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고마운 5월이었다. 백령도의 5월은 외로운 젊은 청년들이 그나마 위로 받을 수 있어 좋았던 계절이었다.

가을부터 늦봄까지 끊임없이 불어 닦치는 바닷바람은 산꼭대기 초소의 삼신이 외로운 젊은 장병들을 그렇게도 괴롭혔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은 삭막한 백령도의 산을 연초록으로 채색하고 그 징그러운 바닷바람도 조용히 잠재웠으니 참 고마웠다.

백령도의 5월을 생각하니 거기 산 정상 초소에서 외로움과 같이 싸우던 친구들이 푸른 군복 입은 20대의 모습 속에서 까마득히 그립다.

결혼해서의 5월은 4월에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밝은 터라 찬란한 햇살이 연초록 잎새에 알알이 쏟아지는 꿈같은 5월로 기억된다.

다음해 5월은 새로운 생명을 안고 맞이한 정말 꿈만 같았던 시절이었고 이것이 삶의 의미인가 보나 라는 회일이 온 봄으로 느껴졌던 좋은 때였다.

그러나 점점 나이 들고 애가 들이 되고 키가 고 직장일에 파묻히고 하면서 맞이하던 관악산의 5월은 그렇게 꿈같지마는 않았다.

그 뒤부터 나에게 5월의 의미는 일상적인 의미로 퇴색되어 가지 않았나 돌이켜 본다.

그렇게 이십 여번의 5월을 보내고 최근 제기동

에서 맞는 5월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 아름다운 5월이 아직도 나에게 와주는 것이
고맙고 살아있음을 다시 느끼게 해주고 정말 소
중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 무신성하게 그 젊음의
세월을 타성에 젖어 살아왔지 않았나 반성케 한다.

인간은 나이 먹을수록 고향이 생각나고 자연이
좋아지고 또 기기에 의지하면서 위로를 받고 싶
어 하는 것 같다.

어른들이 얘기하시던 “ 늙으면 애 된다 ” 라는
말이 실감이 나기 시작한다.

나이 먹을수록 시골 산촌의 하찮은 오솔길, 밭없
이 서있는 나무들, 길옆의 이름 없는 들꽃이 정
말로 예뻐 보이는 것은 이제야 제 분수를 미로소
알아가는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어릴 때 꾸밈없이 뛰어놀던 눈, 밭, 냇산
이 나이 들수록 더욱 사랑스러워 지는 것은 우리
가 그곳에서 키워진 존재들이기 때문인가 보다.
이순 너머 맞이할 5월, 손자손녀를 안고 맞이할
5월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생각해 본다.

끝으로 칼용의 좋은 글귀하나 덧붙이고자 한다.

「정오에 태양은 정점에 도달하는데 그때부터 햇
빛은 줄어들기 시작하고 태양은 떨어지기 시작
한다.

오후는 오전과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나 오후는
다른 법칙을 따른 다.

----- 중 략 -----

이제부터는 밖으로의 팽창 대신에 본질적인 것
으로의 환원, 내면을 향한 길, 內向이 요구된다.
젊은이들이 밖에서 찾았던 것들을 오후를 맞은
인간은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 기술표준 2009.6

